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RAMSAR COP10) 주요 협의 사항 (2008.10.31)

오늘 오전 대부분의 지역 회의가 각 국가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재개되었으며, 대표단들은 본회의와 컨택그룹 회의에서 모임을 가졌다. 본회의에서는 “인간 건강과 습지”에 대한 특별 발표가 있었으며 결의안 초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예산 문제와 사무국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는 개별적 컨택그룹들이 형성되어 오전과 저녁 세션에서 논의를 가졌다.

본회의

결의안 초안 검토

[COP10 DR6] 지역 이니셔티브: 재정소위원회 위원장 Herb Raffaele은 지역 이니셔티브가 협약의 지역적 확대와 효과적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결의안 초안(COP10 DR6)을 소개했다. 협약 당사국들과 지역 내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대표단들은 초안을 수정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가지기로 동의하였다.

탄자니아와 카메룬은 계획된 사업의 자금 확보에 대해 핵심 예산 외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예산조달 매커니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호주와 스위스는 표준화된 보고 형식을 제안하였으며, 사모이와 호주는 균형적인 지역 이니셔티브 배분을 요청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파라과이는 향후 3년 동안 진행될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OP10 DR7] 람사르 Small Grant Fund 활성화 2009 - 2012: Herb Raffaele은 동 SGF 활성화에 대한 결의안을 소개하면서, 이미 상임위를 통해 평가 및 승인되었으나 사무국 자금의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의 SPP(Small Projects Portfolio) 설립을 요청하였다. 기탁국은 추가예산을 수혜 할 SPP 프로젝트 선정권을 갖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SGF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들의 SGF 기금 조성 의무를 강조하였고, 사모이는 군소 도서 개도국(SIDSs)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일본은 SGF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Raffaele은 signature 이니셔티브와 지역 이니셔티브의 차이를 구별했다. 한국은 SGF를 위해 미화 십만 불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으며, 아울러 람사르 탄소 상쇄 기금에 대한 기부가 개발 도상국들의 습지대 관리 지원에 쓰일 것임을 강조하였다.

[COP10 DR3] 당사국 총회와 지역회의의 시기 및 빈도: 당사국 총회 개최 빈도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 및 상임 위원회, STRP, CEPA 회의 개최지의 지역순환을 제안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총회 개최 빈도 연장에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스위스는 각COP간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협약 이행을 위한 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단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적 차원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

다. 뉴질랜드는 의사 결정의 위임에 반대하였고 바바도스는 북미를 대표하여 각 COP간 기간 연장은 곧 두 차례의 지역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아울러 COP의 신흥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오세아니아를 대변하는 사모이와 중국은 COP의 4년 주기가 추가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또한 동 협약의 국제적 가시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중국은 이로 인하여 람사르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상임위의 지역 순환 개최 안에 대하여 일본은 비용의 측면에서 반대한 반면에 미국은 동 협약의 다른 지역 내에서의 인식 증대 등의 이점을 들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지아는 2009년 상임위 개최를 유치할 의사를 밝혔다.

사무국은 대표단들의 당사국 총회 빈도 연장에 대한 강한 반대를 인식하면서 당사국들의 의사에 따라 이 안건을 COP11에서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탄자니아, 말디위, 아르헨티나는 반대하여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무국은 본 결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외 상임위 순회 개최안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당사국들은 동의하였다.

[COP10 DR4] 관리적업반 인수위원회: 결의안 초안(COP10 DR4) 및 에카도르가 주장한 각 IOPs의 대표자가 인수위원회에 속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COP10 DR8] 의사소통, 교육, 참여, 인식증진(CEPA) 프로그램: 많은 당사국들이 CEPA결의안 초안에 지지를 표했다. 호주는 이전 업무에의 협조를 위한 참조사항을 제안했다. CEPA활동계획이 정책 기구와 계획안으로 통합되자 우간다는 빈곤감축을 위한 추가적 언급을 드러냈다. 수정된 결의안 초고가 마련될 계획이다.

[COP10 DR10] 협약의 과학기술부문 향후 이행 계획: 영국은 EU를 대신하여 당사국, 기탁국, 정부간 기구, IOPs, 그 외 자국의 재정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우선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국가 및 단체들에서의 STRP활동에 대한 자발적 기부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STRP 업무에 대해 호주는 감사, 보고, 생태특성변화대응의 중요성, 생태특성기술지침업무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습지 및 도시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주요 업무영역을 제안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빈곤감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습지와 기후 변화 저감적용, 바이오 연료에 대해 브라질은 이에 대한 다른 프로세스들과 중복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에 관한 참조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탄자니아는 4개의 우선사업, 경제분야의 습지관련 이슈에 대한 언어 통합, 습지와 빈곤감축, 습지와 관광산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COP10 DR9] STRP 운용 방식: STRP의장 Heather MacKay는 STRP 운용방식 개정안(COP10 DR9)을 개관했다. 인도네시아는 STRP가 사회경제분야의 전문기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은 STRP감독위원

회가 우선사업 외 영역의 전문가 임명에 대하여 경고했고, STRP는 향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 IOPs와의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10 DR12] 민간 부문 파트너십 : Anada Tiéga 사무총장은 사무국과 경영분야의 파트너십에 관해 제안된 지침을 소개했다. 그 지침은 민간 분야의 의무 확대를 통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공동 활동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독일은 EU를 대표하여 비지니스와 COP9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생물학적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안했다. 탄자니아의 3자간 파트너십 구축 요청에 대하여 사무국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접근성 및 상호 이익공유 수단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만은 STRP가 공사(公私)간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을 건의했다. 뉴질랜드는 증진된 지속가능한 경영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목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STRP가 지속가능생산의 극대화를 포함하여 민간 영역의 현명한 습지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CEPA 프로그램이 이러한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토요일에 지속될 것이다.

컨택그룹 의장보고

재정예산위원회의 Rafaelle 의장은 당사자국들의 4% 증액안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보고했고, 이는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사무국 직원의 추가 채용 및 SGF와 지역 이니셔티브 지원 향상에 사용되어야 함에 결의하였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를 논의한 컨택 그룹의 보고에서 Luis Vayas(에콰도르) 공동의장은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세션간 작업반 혹은 태스크 포스 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그룹

아시아 : Shueng 의장은 여러 지역그룹에서 4% 증액안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도출해내지 못한 재정예산위원회의 결의를 대표단에게 전달하였다. 아시아 그룹의 경우 일본의 반대로 4% 증액안에 대한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였다.

북 미 : 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대해 대표단들은 사무국의 법적 지위 확정에 목표를 둔 중기적 전략이 야기한 특정문제를 해결기 위한 단기적 접근을 내용으로 하는 우루과이의 제안서를 고려했다. 에콰도르와 칠레는 람사르 SGF 결의안 초안에 signature 이니셔티브의 사용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우루과이는 COP11개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유 럽 : 대표단들은 습지와 바이오연료와 더불어 습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다른 프로세스들이 습지에 미치는 충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컨택그룹 구성을 지지했다. 스위스는 습지와 바이오 연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합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의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는 특히 식량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EU국가들이 부정적/긍정적 영향 가운데서 보다 나은 균형에 이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아니아 : 당사국 총회의 빈도와 시기에 대해 일부 당사국들은 COP 회기가 4년으로 연장될 경우 지역 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 자칫 총회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산 부문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사무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력 충원 제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CEPA 프로그램이나 지역 이니셔티브와 같은 보다 주요한 사업에 쓰여질 예산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다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이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임시 파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컨택그룹

이 회의에서는 행정개혁 작업반을 위한 TOR이 첨부된 공동의장의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TOR이 지금까지 실행되어온 업무에 대한 레퍼런스를 포함 여부 및 유엔의 공식적 법적 권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협약과 사무국을 모두 언급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수정된 초안이 준비될 예정이다

방문(放論)

각 국 대표단들은 창원에서 회의 일정에 점차 익숙해지는 풍경이다. 어느 대표단의 “만일 COP가 4년마다 개최되게 된다면 그나마 최소한으로 유지되던 람사르 협약의 국제적 가시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오늘 당사국 총회 빈도를 4년으로 연장하려던 결의안이 부결되리란 것은 이미 예상된 바였다. 내일 오전 중의 습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발표 후에 이어질 토론이 매우 논쟁적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에 의한 중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토론이 이중성의 문제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NGO들이 협약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람사르 리스트에 포함된 사이트의 지위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달구어 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This issue of th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 <enb@iisd.org> is written and edited by Imran Habib Ahmad, Asheline Appleton, Ph.D., Stefan Jungcurt, Ph.D., Leila Mead, and Renata Rubian. The Digital Editor is Dan Birchall. The Editor is Pamela S. Chasek, Ph.D. <pam@iisd.org> and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is Langston James “Kimo” Goree VI <kimo@iisd.org>. The Sustaining Donors of the *Bulletin* are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FI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rough the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CIDA), the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the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uropean Commission (DG-ENV), and the Italian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Land and Sea. General Support for the *Bulletin* during 2008 is provided by the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Government of Australia, the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Environment and Water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wed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WAN International, Swiss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the Finnis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the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 IGES),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rough the Global Industrial and Social Progress Research Institute - GISPRI)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Funding for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French has been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rancophonie (IOF). Funding for the translation of the *Bulletin* into Spanish has bee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Spain.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Bulleti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IISD or other donors. Excerpts from the *Bulletin* may be used in non-commercial publications with appropriate academic citation. For information on the *Bulletin*, including requests to provide reporting services, contact the Director of IISD Reporting Services at <kimo@iisd.org>, +1-646-536-7556 or 300 East 56th St., 11A, New York, NY 10022, USA. The ENB Team at Ramsar COP10 can be contacted by e-mail at <stefan@iisd.org>.